

不条理 克服을 위한 提案

林潤東

不条理 克服을 위한 提案

沈鬱하고도 暗澹한 與件속에서도 「밝은來日의 希望과 勇氣」를 잃지 않는것이 슬기로운 삶의 態度라고 生覺한다. 우리들 建築士는 이러한 어려운 時代的 狀況을 克服하고 밝은未來를 開拓하고 確保하겠다는 높은 理想의 實現을 爲하여 盡皆하고 꾸준한 努力을 傾注하는데서 참된 보람을 찾아야 할것이다. 돌이켜 볼진데 越南이 共產化된 以後 우리社會는 緊張할수 밖에 없었고 온 國民이 能動的으로 安保와 秩序와 生産의인 發展에 參與하고 나선 姿勢를 높여 評할수 있을 것이다. 當時 政府當局의 施策은 社會 各分野의 구석구석을 徹克함으로서 不正腐敗에 對한 不条理를 도려내는 새로운 條理의 確立方案으로 住宅建築許可制度改善方案이 國務總理指示 第八號로 76年 6月에 建設部(국무총리 행정조정실)로 부터 公布示達되어 示範的으로 수원, 춘천, 전주, 진주 4個市를 對象으로 實施한 바 비교적 좋은 成果로 認定되어 77年 1月 1日부터 全國에 確大實施케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外形上으로는 별로 蹉跎없이 施行되고 있는듯 하다. 이같은 時代的 要請에 依한 住宅建築行政業務에 對한 庶政刷新成果에 對하여 銳意分折하고 진단하여 스스로 処方까지 提示할까 한다.

「첫째」前記한 改善方案의 建築許可業務處理는 編成된 連帶責任建築士가 所定書式의 點檢表에 連帶署名捺印하여 許可申請하면 許可官庁은 點檢表에 依해서 建築法및 其他 關係法令의 諸規定에 適法與否를 檢討하여 適法한 許可申請은 8勤務時間內에 許可處理하게끔 되어있음에도 初期에는 迅速處理되던 許可業務가 近來에 와서는 規制時間內에 處理하지 못하였던 境遇가 非一非在 하다는 事實은 누구도 否認치 못할 것이다. 特히 서울의境遇 近來에는 다소 緩和되었으나 住宅建築에 있어서도 建築의 美觀및 機能, 構造等を 審議하는 制度가 마련되어 週一回에 있는 審議에서 通過된 年후 決裁權者의 裁可를 得하여야 許可될 수 있는 지연要因들은 刷新을 爲한 國務總理指示 第8號에 對한 엄연한 逆行이며 고쳐져야 마땅한 當然之사가 아니겠는가, 晚時之歎感마저 없지않으나 監督官署는 指示된 庶政刷新事項을 수시로 點檢하여 消極的인 作業에 머물것이 아니라 새로운 條理의 確立이라는 보다 積極的인 作業까지가 펼쳐졌을때 비로소 庶政刷新은 成就의 功績에 들어맞았다고 볼것이다.

「둘째」이와같이 國家의 安保의인 次元에서 추진된 本業務를 우리들 建築士는 附與된 莫重한 義務를 誠實하게 遂行하였는가를 孟省하여야 될줄로 안다. 建築行政의 不信과 不条理의 除去라는 目的下에 추진된 改善策에 따라 連帶責任下에 行政官署를 代身하여 履行된 建築許可 및 竣工檢査等を 勤勉誠實하게 그 義務와 權限을 行事하였는가를 냉철히 돌이켜보면 언뜻 自信있는 對答에 주저하게 된

다. 勿論 避치 못할 原因과 事由야 있겠으나 엄밀히 가름하여볼때 주어진權限의 拋棄요 怠慢인것이다. 이로因하여 많은 會員들이 資格停止 또는 事務所 폐쇄등 不美스런 行政処分을 받게끔 되었으며 앞으로도 처벌받게될 會員은 不知其數일 것이다.

果然 이대로 끝없이 가야만 할것인가 現實이 어렵고 苦痛스러울때 사람들은 흔히 挫折과 絶望속에 몸을 내던진채 長嘆息만을 일삼는다. 그러나 生命의 本質과 價值를 尊重하는 意志力은 한시도 이러한 挫折이나 絶望에 沈沒할수 없는것이다. 장차 일어날수 없는 狀況을 억지로 일으키려는 非現實的蠻行이나 오직 処分만을 기다리는 식으로 袖手傍觀하는 기다림이 希望일수도 없다. 그렇다고 急進的인 冒險主義나 現實을 無視한 白日夢들을 참다운 希望과 혼동할 수도 없다. 希望은 信念과 함께 있는 것이며 사랑과 結合된것이다. 信念은 아직 證明되지 않은것을 믿는 精神力, 참된 可能性을 아는 洞察力, 또는 뜻한바를 體感할 수 있는 智慧의 힘이라 할수 있다.

希望찬 建築士社會를 構築하겠다는 信念은 참다운 勇氣의 展開와 不屈의 精神을 要求한다. 그러나 그곳엔 樂觀的인것만 存在하는것이 아니다. 우리의 希望은 危機요 不安이며 鬪爭的인 過程을 前提한 意識의 革命的變化가 要望된다. 그 勇氣와 不屈의 精神은 諦念主義者의 無謀性이 아니라 삶에 對한 熱望과 會員相互間 사랑의 實踐속에 持續하는 것이다. 그에 對한 提案은 여러가지 形態와 方法 등으로 表現할수 있겠으나 무엇보다 健全한 風土와 正常的인 條理가 設을때 우리 建築士社會는 비로소 健康을 누리게 될것으로 본다.

첫째 우리生活의 주변에 惰性的으로 存在하는 行態의 不条理인 設計用役의 過當競争을 止揚할수 있는 高次元의 政策立案과 둘째 現實狀況을 充分히 洞察한 合理的이고 法趣旨에 適合한 合同事務所 設立및 運營에 對한 全國的인 汎研究機構를 構成하여 좀더 알찬 方案을 創案하여 推進할때 비로소 누적된 不条理가 除去되고 다함께 잘살수 있는 世態가되지 않겠나 生覺된다. 그런데 어느時代 어느社會를 莫論하고 무언가 해야 할일을 밀고나가는 過程에서 社會構成員 全部가 한사람의 例外도없이 이에 贊成共感하고 나서는 일이란 드물다기보다 거의 없는것이 아닌가 生覺된다. 물론 저마다 個性을 지니고 얽혀사는 人間社會에 있어서 本然의 모습인지 모른다. 그러나 問題의 焦點은 異見이 있어도 한번 方向이 定해지면 「時代의大勢」에 따라가는 順應性에 있는것이 아닌가한다. 이렇듯 會員全體의 意識的 同意로 不条理를 追放하고 總和를 이룩하는 未來에 對한 希望과 勇氣를 회복하는 우리모두의 努力이 오늘의 時点에서 그 어느때 보다도 期待된다고 하겠다.

서울支部 代議員